



2023년 / 3월 5주차

##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3월 27일(월) 15시 :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스텝회의
- 3월 31일(금) 16시 : 기자촌구역 기록화 사업 편집회의

## ■ 연구원 소식

### 제 54차 시민문화강좌

3월 25일(토) 16시 30분부터 18시까지 전주대학교 한지산업관 201호에서 54차 문화강좌가 열렸습니다. 모두 스무분 가량의 회원과 시민이 봄 소풍을 와주셨습니다. 국내외적 시기와 맞물려 우리가 험하게 쓰던 외국어에 대한 반성과 우리 말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55차 문화강좌는 4월 29일 열릴 예정입니다.



## ■ 회원 기고문

### 오호 통재라 ! 癸卯 국치를嘆한다

이강안 원장

2023년 104돌을 맞은 3.1절 대통령의 기념사는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 3.1절은 일제의 무단 통치에 항의해 자주독립을 외친 선열의 행동과 뜻을 기리는 날이다. 그래서 3.1절 기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분명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3.1 운동에 담긴 보편적 정신이 반인류적인 제국주의의 잘못을 만방에 알리고 우리의 주권을 찾는 것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새기는 날이라는 것을 대통령은 잊은 듯하다.

1910년 경술국치일에 박제순(외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권중현(농 산부 대신) 등 대신들이 앞다투어 일본제국에 충성하면서 나라를 팔아넘겼다. 이후 우리는 35년여를 통한의 세월을 살아야했던가!

수많은 열혈 독립운동가들과 순국선열들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되찾았고, 800여만 명에 달하는 힘없는 백성들은 강제 동원되어 전쟁터, 탄광, 군사시설, 공사판 등에서 노예처럼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죽었다.

1944년 일본은 여자 정신근로 동원령을 내려 한국 여성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하여 군수공장에 또는 일본군 성노예로 혹사시켰다. 때로는 기밀 유지를 위해서 집단학살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역사 위에 드러난 사실도 다 거론할 수 없이 많은 데, 보이지 않은 핍박과 횡포는 얼마나 많은지 가히 짐작할 수가 없다. 이렇게 희생하며 흘린 피눈물과 고통의 한이 아직도 삼천리 방방곡곡에 응어리져 있다.

광복을 맞이한 지가 78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일본은 진정한 사과와 피해보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우기며 아예 교과서에 그 내용을 실어 어린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진실처럼 가르치고 있다. 그런 뻔뻔함을 자행하고 있는 일본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반자라고 말하는 대통령의 역사의식이 심히 의심스럽다.

이는 대통령이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미래만을 바라보는 짧은 인식이다. 더군다나 일본의 식민지 현실을 우리가 잘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을 받았다고 단순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을 받은 일제 강점기 징용피해자에 대한 보상 해결책이 더 가관이다. 세계기업과 경쟁에 땀 흘리고 있는 기업체의 팔을 비틀어 기금을 조성해서 국내재단을 만들어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한반도의 불법 강제 점령은 없었고,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억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최소한의 국가 역할도 포기하는 행위다.

### **오호통재라! 2023년 계묘년 봄을 또 다른 국치일로 기억해야 하는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수많은 억조창생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휩쓸리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져야 마땅하다. 자칭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면 국가가 스스로 피해 유족에게 눈물로 사죄하고 국가의 힘으로 보상하고 위로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의 과업은 나라를 빼앗긴 치욕스럽고 원망스러운 기억을 바탕으로 아픈 흔적들을 모두 조사하고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알리는 일이다. 기념물을 만들어 통한의 역사를 잊지 않도록 교육하고 또 교육해야 한다. 이러한 연후에 일본의 사죄를 받고, 우리 스스로 관대한 용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하게 금전적 보상을 청구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반인류적인 부끄러운 역사를 대대손손 세계만방에 알려서 그들 스스로 뉘우치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가슴에 응어리진 일제 식민지의 한은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탄탄한 국력이 신장되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이미 80여 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기에 행여 잊혀질까 염려스럽다.

‘과거를 들고 있으면 미래를 들 손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만, 현재의 우리가 과거 치욕스러운 역사를 깊은 인식으로 안아 주고 직시하여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깊이 새겨 앞으로 나아간다면 밝은 미래는 우리 손에 있다.

우리의 역사가 엉클어지고 흐트러져 독립운동가와 강제 징용피해자가 수십 년을 피해자로 살고 오히려 당시 가해자였던 친일파들이 여전히 존재하여도 우리 국민은 이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 잘못된 결과는 멀리 가지 않아도 곧 징치될 것이다. 또다시 국민을 슬픔에 젖게 하지 말아야 한다.